

[첨부2] 권태신 부회장 개회사

안녕하십니까,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입니다.
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
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님과
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인사이트를 주실
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참석자 여러분!
내우외환이라는 말 그대로
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요즘입니다.

우리 경제는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,
물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
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
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고자 지난 10월 중순
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만,
경기하락세가 진정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

IMF를 비롯하여 각 기관에서는
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.
또한 지난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.4%로
올해 2% 성장마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.

- * 기준금리 1.50%→1.25%, 0.25%p 하향조정. 16년6월~17년11월 기준금리인 1.25%와 동일하게 역대 최저 수준 (한국은행, '19.10.16)
- *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.6%→2.0%, 0.6%p 하향조정 (IMF, '19.10.15)

내수부진, 일본의 수출규제 등 많은 어려움이 포진해있으나
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
미국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에 끼칠 악영향입니다.
여러분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으며,
전체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각 3위, 5위를 차지합니다.
또한 이 두 품목의 대미수출은

품목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.

- * 5대 수출품목 : 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, 평면 디스플레이 및 센서, 자동차부품 (한국무역협회, 2018년, MTI 3단위 기준)
- * 자동차 수출액 \$409억 중 대미수출 \$136억(33%), 자동차부품 수출액 \$231억 중 대미수출 \$60억(26%) (한국무역협회, 2018년, MTI 3단위 기준)

2018년 한미FTA 개정으로

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어,
232조 자동차 및 부품 고관세 적용 대상에서
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.

이 같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자
전경련은 2주전 워싱턴으로 대미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.
사절단은 미 상무부, 국무부와 싱크탱크의 면담에서
한국산 자동차의 232조 관세 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.
또한 미 상의와 공동주최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는
한국의 232조 적용 제외 목소리를 담은
양국 재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
부디 사절단의 목소리가 11월에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.

오늘의 좌담회는

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및 부품대상 관세 부과여부를 앞두고,
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되
지난번 철강산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
앞으로 우리 타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.

오늘 좌담회를 통해 참석자 여러분께서
무역확장법 232조에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